



가 정 통 신 문

(우)54634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35길 41 (영등동) (<http://www.namsung-g.ms.kr>)

전화: 063) 841-3825

담당: 보 건 실

학부모님께

최근 10대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부 연예인이나 유명인에게 국한되었던 마약이 점차 일반인들에게까지 퍼지고 심지어 10대·20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2년 적발된 15세 미만 마약사범도 38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교에서는 마약류 범죄 피해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학생 생활지도와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최근 발생한 10대 마약 사건

- ☐ 고등학생 3명이 범행을 공모하여 텔레그램 채널로 마약을 판매하다 적발
- ☐ 충북 음성군 10대(18세) 집에서 마약 성분이 있는 '환각 버섯'을 집에서 재배해 캡슐 형태로 가공하여 판매하다 적발
- ☐ 2022년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불법 투약 및 유통한 혐의로 무더기 적발



2. 약물 구입 경로 (구글 검색 ☐ 트위터 ☐ 텔레그램 ☐ 물품보관함)

- ☐ 구글에서 마약을 칭하는 은어로 검색하면 마약을 판매하겠다는 수십개의 글이 검색됨
- ☐ 트위터나 텔레그램에서 판매자의 아이디를 검색하면 마약 공급책이 운영하는 채널로 들어감
- ☐ 마약 금액을 가상화폐 등으로 결제하면 판매책이 지하철 물품보관함, 건물 환풍구, 에어컨 실외기 등 오피스 라인에서 마약을 전달할 수 있는 안전좌표를 알려줌 (일명 '던지기'수법)
- ☐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경우 청소년들은 메신저를 통해 펜타닐을 처방받는 방법이나 펜타닐을 쉽게 처방해 주는 병원 등을 공유

3. 23년 4월 발생한 10대 학생을 타겟으로 한 마약 사건

경찰청
학원가 미문의 '서울행사'
알고 보니 마약 음료수

신종유형 알범경보 제5호

서울 학원가 일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수를 건넨 일당 검거 23.4.3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를 사용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속여 마시게 하고, 부모의 연락처로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것이 알려지면 좋을 게 없지 않나"라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주수·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타인이 제공하는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은
음료수 등은 절대 음용 금지!!

이와 유사한 의심사례 발생 시
곧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위와 같은 사례의 피해자는 마약임을 알지 못하고 복용하게 된 경우로 처벌받지 않으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반드시 112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2023년 11월 8일

이리남성여자중학교장(직인생략)